

'동국비전21' 최종 확정

21세기 미래상 제시 ... 구체적 방안 마련 과제

본교 장·단기 발전계획인인 동국비전21이 지난달 23일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3월 '동국비전 21'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1년여 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확정된 이 계획안은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디지털 온라인 교육을 통한 세계인의 대학 △국내 상위 5위권 대학을 오는 2010년까지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크게 교육부와 연구부, 행정·재정부문의 발전계획안을 마련했는데 각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본교는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재학생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전공 선택결과 등을 반영해 선택된 학문만을 집중 육성하는 특성과

회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실용중심교육을 지향하며 전문대학원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부=2005년까지 4개 분야를 중점 육성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출원과 등록에 관한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대학·산업체 간 세미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인사처 기획심사팀의 한 관계자는 "특허출원 등의 한 분야의 지적재산 확보가 타 분야의 발전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재정부=기관적평가와 같은 업적평가제도의 정착과 책임중심 예산제도를 통해 각 부서의 성과에 따라 예산을 분배

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관리 감독 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해 고객 지향 경영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21세기 본교의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제시를 과제로 남겼다. 일례로 교육부에서는 특성화 분야조차 선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색화의 구체적인 방법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난 96년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일산캠퍼스 건설이 이번 계획안에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동국비전21'은 말 그대로 본교의 발전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다. 이 계획안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각 부서의 추진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부
flower@dongguk.edu



일산병원 상량식 ...

본교 의과대학·한외과대학 부속 일산병원(불교종합병원)의 상량식이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건립부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상량식에는 오석원 이사장, 송석구(철학)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과 원로 스님들을 비롯하여 2천여명의 불자가 참석했다. 총 3만여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한방·양방 1000병상으로 강북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불교종합병원은 현재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0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한편, 이날 상량식장에서는 현금으로 기부된 약 2억1천3백6십만원의 포함하여, 본교 오석원 이사장과 불교계 인사 등 2500여명이 총 3억4백7십만원의 건립기금을 약정하였다.

본교 의과대학·한외과대학 부속 일산병원(불교종합병원)의 상량식이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건립부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상량식에는 오석원 이사장, 송석구(철학)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과 원로 스님들을 비롯하여 2천여명의 불자가 참석했다. 총 3만여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한방·양방 1000병상으로 강북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불교종합병원은 현재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0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한편, 이날 상량식장에서는 현금으로 기부된 약 2억1천3백6십만원의 포함하여, 본교 오석원 이사장과 불교계 인사 등 2500여명이 총 3억4백7십만원의 건립기금을 약정하였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지면안내

- 우리의 전통먹거리, 김치 7면
- 한·철레 자유무역협정 논란 3면
- 출판업계 주도권 분쟁 6면



어느새 서양 먹거리에 익숙해져 우리 전통음식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전통 먹거리 '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되새겨 본다.

보리수

바미안 불상 파괴

전 해 주 (불교대 불교학부)

요즈음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은 이슬람교 원리주의자들이 탈레반이라는 집단이 바미안 불상과 주변의 유적지를 무참히 파괴하여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불상은 우상이며 이슬람교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훼손행위를 선포하고 자행한 것이다. 이슬람교는 과거에도 인도에 침입하여 불교가 인도에서 거의 사라지게 치명타를 가한 적도 있었다. 참으로 어이없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미안 불상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북서쪽으로 129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바미안 계곡에 있는 높이 50m 되는 거대한 불상이다. 5세기경에 조성된 간다라 양식의 불상으로서, 오래 전 현상스님과 신라의 해초스님도 이곳을 참배하였다고 한다. 인류문화유산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어, 유네스코와 세계 각국에서도 그들의 만행에 대하여 강력한 비난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화염경에서는 "색신이 부처 아니며 음성 또한 그러하나, 색신(色身)과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 신통력을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부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모습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늘의 달 하나가 천 개의 달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법신이 색신을 통해서 인연따라 증생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저들은 단지 그 점을 깨닫지 못하여 증생의 업을 짓고 있는 것이다. 불교인들은 그러한 법신의 현현된 모습을 불상으로 모셔서 예배하며 부처님처럼 피기를 발원하고 있는 것이다.

바미안 석불 파괴로 인해,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한 이교도의 훼손행위가 혹시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보여진다. 훼손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남은 유적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지지의 뜻을 전 세계적으로 함께 모으는 면 한다.

다무라 교수 본교 방문 불교학 석좌교수 임명

일본 큐슈대학 다무라 엔쥬(田村 恩澄) 명예교수가 오는 11일부터 4일동안 본교를 방문한다.

다무라 교수는 오는 12일 총장실에서 본교 불교학과 석좌교수 임명장과 감사패를 받은 후, 13일 경주캠프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무라 교수는 지난해 3월 본교 중앙도서관에 1만 3천여권의 불교학 도서를 기증했으며, 기증 도서는 현재 다무라 문고로 운영되고 있다.



3.30 총결기 ... '동북금 인상 저지, 국가교육재정 확충,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 전면 철회를 위한 3.30 전국 대학생 총결기'가 지난달 30일 중요공원에서 열렸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축구부 전국대회 3위 1점차로 결승 탈락

본교 축구부(감독=김승기)가 제49회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에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축구부는 예선에서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후 건국대, 국민은행, 서울시청을 차례로 꺾고 4강에 올랐으나 울산대에 0:1로 저 결승문턱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한편, 본교 야구부(감독=한대화)는 오는 7일부터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 출전한다. 경희대, 고려대 등 6개팀과 같은 조에 편성된 본교는 춘천야구장에서 경성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관광대, 산학협력 협정 체결 현장실습교육 강화로 전문인력 양성 기대

경주권 관광대학(학장=서태양·관광경영학)은 지난 1일 미국 기업인 유니 월드 관광여행사, 국내 기업인 나스 항공여행사와 산학 협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관광대학 활성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이번 트립체 '대아 기획'과 산학 협정을 체결한 이후 일반 여행사와는 처음으로 맺어진 것이다.

협약의 주요 사항은 △현장실습 및 취업기회 제공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인력의 공동개발 △국내·외 관광산업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등이다.

이러한 산학협력으로 본교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는 저렴한 해외여행의 혜택이 주어지며 이익금의 일부는 본교 학생들의 호텔

오는 9일 도서신관 기공식 한달 후 본격적인 공사예정

2002년 8월 완공 예정인 도서신관 기공식이 오는 9일 오전 11시 학관앞 앞 공터에서 진행됐다. 기공식은 오석원 이사장과 송석구(철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처장의 경과보고 △도서관장 설계 설명 △시삽 등의 행사로 진행됐다.

기공식 이후 강의동 주변의 나무 옮기는 작업을 시작으로 강의동과 테니스장을 철거하며 약 한달 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흥별관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학관단은 원흥별관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철거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본교 불교학 연구업적 저조하다?" 종관위 주최 세미나서 팽팽한 대립 보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본 한국 불교학의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조계종 총회의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학답)의 주최로 지난달 20일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종명 박사는 "최근 10년간 교수들의 출판 저서와 논문을 살펴보면 국내외 교수들의 업적에 비해 양적으로 적었고, 질적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학술적 우수성의 척도가 되는 전문 학술서 발간이 지난 4년간 한권도 출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효성(인도철학) 교수는 "2000학년도 연구업적의 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잘못 평가하였다"며 근거 자료의 타당성에 의의를 제기했다. 또한 "학술진흥재단에 의한 질적평가는 상대적인 타당성을 가질 뿐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한국 빠알리점정협회 전재성 회장은 "동국대 불교학부는 문헌학이나 어학등 기초학에 대한 토대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타대학 출신의 교수가 채용될 가능성은 거의 봉쇄되어 있다"며 불

본사사령

◇ 입수습기자

- ▲ 박우정 (문과대 1)
- ▲ 조슬기 (문과대 1)
- ▲ 김진성 (사회과학대 1)
- ▲ 송윤경 (사회과학대 1)
- ▲ 이재철 (사회과학대 1)
- ▲ 함민희 (인문과학대 1)
- ▲ 이지현 (인문과학대 1)
- ▲ 조임경 (인문과학대 1)
- ▲ 신정환 (자연과학대 1)

-이상 4월 2일자

발전기금 ARS 7000-119

여러분이 바로 '기자'입니다

소나기
매주 화제로 떠오른 한가지 주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날카롭고 재치있는 20자 내외의 글을 기다립니다.

동약광장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기 속스러운 속내를 동약광장에서 전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글터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독자 여러분의 작품(시, 수필, 만화, 사진 등)을 신문에 소개합니다.

독자광고
동아리 소개, 아르바이트 구인, 동문회·향우회 모임, 분실물 공고 등 독자 여러분의 광고는 무료입니다.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으로 그 주의 동대신문을 읽어보실 수 있으며, '독자투고'와 '자유게시판' 등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동대신문사

현전무대

2IC 장차

0...상록원을 이용할 때에는 세가지(道)가 필요하다는데.

첫째, 음식이 맛이 없고 메뉴가 적어도 불평하지 않으니 이를 인(仁)이라 한다.

둘째, 아주머니의 불친절에도 공손히 음식을 받으니 이를 예(禮)라 한다.

셋째, 더러운 식판과 식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 이를 용(勇)이라 한다.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21세기 장자들. 도(道)를 갈고 닦아 무엇을 얻으리오!"

누구 맘대로

0...생협출자금들 돌려 받으러 온 학생들이 빈손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었다는데.

알아보니 졸업식에서 받아가지 않은 생협 출자금을 환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조교들이 일괄하고, 각 단과대 학생회별로 오는 6일까지 본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시청은 각각' 수업

0...시청각 수업시간만 되면 학업에 대한 열의로 가득찬 학생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데.

시청각 수업을 진행하려면 비디오가 설치돼 있는 강의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의실을 옮기더라도 커지지 않는 텔레비전 때문에 학생들이 분통을 터뜨린다고.

등록금은 5% 올랐지만 교육환경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 본 회전문대자 왈, "시청각 수업, 시청자는 많은데 시청률은 0%"

상담 미야

0...지난해 전공결정을 한 2학년 학생들이 상담교수와 상담을 하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데.

이유인즉, 인기학과로 몰린 학생수에 비해 전공교수는 턱없이 모자라 학생들이 교수와의 상담을 하고 싶어도 담당교수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모집단위 광역화로 인해 전공배정인원이 고부충처럼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교수인원은 변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한쪽만 늘어나면 다른 한쪽은 줄어든다"

학자요구안에 대한 답변 전달

총학, 납부연기 운동 마무리 ... 농성 계속하기로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가 지난달 14일 학원자주화투쟁선포식 때 학교측에 제출한 학자요구안에 대한 답변이 지난달 21일 열린 등록금 2차 협의가 끝난 후 전달됐다.

요구안과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록금 인상을 재조정과 재단 전입금 확충=올해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 최저 5%인 상한 것임. 따라서 등록금 인상을 재조정은 어려움. 재단 전입금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재단도 종단과 협조를 통해 수익사업 확대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

△가결산 공개 통한 등록금의 합리적 산출근거 제시와 학기중 등록금 책정 정기 논의=2000년 결산은 예산정지 6주 징계조치를 받았고, 공과대 학생회는 감사자료미비로 예산정지 4주 징계조치를 받게 되었다.

△'학부제·모집단위 광역화 제검토 위원회' 설치=현재 교육개혁 추진단에서 학사제도 개선을 연구 중임. 이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음.

△제2도서관 '도서관 자치위원회' '공간 소위원회' 구성=지난해부터 좌식관리 등을 위한 관리학생을 배치해 운영중임. 공간배치와 관련해 총학생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것임.

이에 대해 임은희(수교4)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은 "구체적인 답변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등 성의 없는 대답이 대부분"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21일 기획인사처장실에서 열린 등록금 2차 협의는 1차협의때와 마찬가지로 학교측과 총학생회측의 입장표명으로 끝났는데, 김덕기 부총학생회장의 "등록금 인상률 재조정과 2000년도 가결산 공개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용길 기획인사처장은 "계획이 없다"고 말해 학교측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한편, 총학생회는 지난 30일 불상 앞에서 '3·30 공동연대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100여명의 학생이 추진단에서 학사제도 개선을 연구 중임. 이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음.



지난 30일 총학생회는 등록금 현물납부를 실시했다.

참가단은 재무회계팀을 방문해 지난 14일 열린 학원자주화투쟁선포식때부터 각 학생회별로 모은 쌀 11가마를 김덕기 부총학생회장의 등록금으로 납부했지만 "상식적으로 통화가치가 없는 쌀을 등록금으로 받을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총학생회는 납부연기 운동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마감일인 7일까지

납부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총학생회는 해오름식이 열리는 오는 10일까지 김홍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의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로 하고, 각 단과대 학생회별로 오는 6일까지 본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실시

인증서 소지해야 정품 인정

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다음달 30일까지 본교를 포함한 각 대학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실시한다.

MS 윈도우 95와 98, 한글 97 등 복제율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한편,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대비해 각 행정부서와 컴퓨터실습실에 정품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실장은 "정품을 사용하지도 인증서가 없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인증서를 CD와 함께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회 보궐선거 소식

법과대 손민환(법4)후보가 투표인원 280명중 찬성 254(90.7%)표로 당선.

예술대 차중철(영화3)후보가 투표인원 384명중 찬성 334명(86.9%)로 당선.

단과대 해오름식

불교대 4일 두리터에서.

문과대 6일 오후 6시부터 명진관 앞에서.

사범대 4일 오후 4시부터 본관 중앙담에서 새내기 연극단지와 함께.

사회과학대 '새내기 체육대회'를 4일 오후 4시부터 만해광장에서.

중도신청서 예산 증가 학생회당도서 5% 늘어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의 2001학년도 교수추천도서와 학생회당도서 구입 예산이 각각 5%, 15%씩 증가해 교수와 학생들의 신청 도서구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도서관은 35%였던 도서관 선정도서구입 예산을 20%로 낮추고 학생회당도서와 교수추천도서 예산을 각각 20%, 60%로 편성했다.

연등원 개장해 불교대·불교학생회에서

불교대 학생회(회장=김태수·불교4)는 오늘(2일)부터 21일까지 불교대 학생회실에서 연등원을 개장한다.

제작된 연등은 문화관 3층에 전시되며, 다음달 1일 연등 축제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불교대 학생회는 오는 23일부터 7일동안 중앙도서관 앞에서 연등만들기 시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불교학생회(회장=조홍근·전기공)는 지난달 24일 학생회관 2층 불교학생회실에서 연등원 개장식을 가졌다. 한지, 칠사 등을 이용해 연등을 만드는 이번 행사는 교수, 직원,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불교대 학생회는 오는 23일부터 7일동안 중앙도서관 앞에서 연등만들기 시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불교학생회(회장=조홍근·전기공)는 지난달 24일 학생회관 2층 불교학생회실에서 연등원 개장식을 가졌다. 한지, 칠사 등을 이용해 연등을 만드는 이번 행사는 교수, 직원,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생증인증시스템 재가동

오늘부터 학생증 지참해야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오늘(2일)부터 학생증인증시스템을 재가동한다.

이에 따라 각 컴퓨터 공용 실습실과 캠퍼스 샵 등에서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정보관리실은 그동안 신입생들의 학생증 발급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학생증인증시스템 가동을 미뤄왔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실장은 "앞으로 신입생들에게 학생증을 미리 교부해 인증 절차를 학기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차 생협준비위 개최

출자금 5000원으로 결정

제 2차 생협특별임원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상록원 3층

에서 열렸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조합원을 전자계산원을 제외한 교수, 직원, 학생, 대학원으로 인정 △출자금을 작년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리고 출자 구좌수를 20%로 제한 △사전 의견조율을 위해 각 구성원 대표 4명의 정기적인 모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총학·공대 새터 재감사

무기한 예산정지 취소

2001년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 부정기 감사 제출시한을 지키지 못한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와 공과대 학생회(회장=황정임·전자4)의 재감사 결과, 각각 예산정지 6주와 4주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총대의원회(의장=유승우·아시아지역4) 산하 중앙감사특별위원회의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재감사에서 총학생회는 감사자료미비와 금전출납부 오기로 예산정지 6주 징계조치를 받았고, 공과대 학생회는 감사자료미비로 예산정지 4주 징계조치를 받게 되었다.

새내기 기획영화제 실시

매달 주제선정 상영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태광·국교4 이하 학부위)는 매달 한번씩 주제를 선정해 영화를 상영하는 새내기 기획 영화제를 실시한다.

죽마고우 영화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새내기 기획 영화제는 신입생들에게 영화 감상문을 접수받아 우수작을 선정해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김태광 학부위 위원장은 "재미 위주보다 작품성 있는 영화를 선정해 신입생들이 주제를 생각하며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동연, 새내기 교양학교

오늘부터 연화원에서

동아리연합회(비대위원장=이동우·전기4)는 2001 분사분과 새내기 교양학교를 오늘(2일)부터 오는 6일까지 학생회관 2층 연화원에서 진행한다.

분사에 관심있는 새내기들을 위한 이번 행사는 △2일=손익사 랑회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문제 △3일=같이 두 번의 봉사활동을 통한 우리의 생각 △4일=RCY가 헌혈과 백혈병 이야기 △6일=젊은새이웃이 새내기 예비교사 되기를 주제로 동아리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 비즈니스 인력양성 과정 수료생 황윤정 동문을 만나

“교육 덕 많이 봤어요”

전자상거래 교육 모범사례 선정 ... 청와대 초청 발표

여학생실(실장=김영순·화학)에서 실시하는 e-비즈니스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강했던 황윤정(영교 99졸·클릭클릭코리아 기획팀장)씨가 지난달 26일 정부가 주최한 전자상거래 교육 모범사례로 뽑혔다. 황윤정 씨를 만나 소감을 들어 보았다.

- 모범사례로 뽑힌 소감은 = 청와대 정보화교육 수혜자 초청 오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디지털 신문을 만드는 모습을 직접 선보였다. 초청자 대표로 시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전자상거래 교육을 받게 된 계기는. = 학교 다닐 때 매일경제신문과 EBS에서 인터넷 웹PD와 소프트웨어 테크노 2000이라는 인터넷 방송의 MC를 한적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 분야의 일을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그때쯤 여학생실에서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게 됐다.

- 현재 하고 있는 일은. = 인터넷 벤처기업인 클릭클릭코리아에서 기획팀장을 맡고 있으며, 매주마다 전자신문에 사이버 테마 여행기라는 칼럼도 연재한다. 앞으로 전공을



황 윤 정 (영교 99졸·클릭클릭코리아 기획팀장)

살려서 전공 학교를 온라인 상에서 묶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상하고 있다.

-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교육과정이 길지 않았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강의를 듣는 이외에도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후배들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손상민 기자 ne0292@dongguk.edu

취미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단기강좌

여학생실에서는 정서함양과 교양습득, 그리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기중에 단기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학내에서 학생들이 보다 신속한 문화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기간 및 강좌명 : 2001년 4월 9일 ~ 5월 11일, 매회 2시간씩(5회)

Table with 5 columns: 강좌명, 강사, 내용, 요일/시간, 비고. Rows include Monitor 과정, 댄스&댄스, 이미지메이킹, 국제회의전문가, and 손뜨개.

2) 접수 및 장소 : 2001년 3월 26일 ~ 4월 6일 (선착순 마감, 단 정원 이하는 폐강), 계산관 (사범대 옆건물)

3) 수강료 : 5,000원

* 기타 문의는 여학생실(2260-3056, 계산관 1층)로 하시면 됩니다.

여 학생 실

신체검사 추가 실시

보건소에서는 2001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신체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오니 해당학생들의 동참 바랍니다.

(입학전 2월 23일 ~ 2월 28일 기간에 신체검사를 마친 학생은 제외합니다)

- 추가신체검사 기간 : 2001년 4월 3일 ~ 4월 4일
• 추가신체검사 시간 : 오후 1시 ~ 5시
• 추가신체검사 장소 : 동국대학교 본관 2층 보건소
• 문 의 처 : TEL 2260 - 3466

* 신체검사비용은 여러분이 입학하실 때 내는 등록금에 포함되었으며, 검사후 결과 이상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 건강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보 건 소

기여입학제 도입 논란과 문제점

대학 서열화로 학벌공화국 심화시켜

올해들어 일부 사립대학 요구로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학교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자녀에게 입학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사립대학 재정난 해소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뿌리깊은 학벌위주의 사회구조로 학력과 학벌이 곧 사회 계층의 배분 준거로 작용하고 있어 대입경쟁이 극심하다. 1점 차이로 수시, 혹은 수백명의 당락을 결정짓는 대입 풍토에서 기여입학제는 특수 계층의 학벌 상속이라는 부작용과 불공정, 나아가 계층간 위화감만 유발시킬 것이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노골화 될 것이다. 소위 일류 대학들은 기부자들이 물려 활발한 기부금 유치가 가능하다. 그밖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기부자들이 적어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대학들은 값싼 대학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불명예까지 감수해야 한다.



김홍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

기여입학제는 당사자의 인격발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기여입학자는 정당한 실력을 기반으로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는 열등감과 소외감을 겪게 되어 건전한 인격발달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미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조건 없는 기부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약간의 특혜를 베풀어도 사회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국민전체에 자리잡을 때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학벌이 더 이상 사회 계층 배분의 준거로 작용하지 않고, 치열한 대입 경쟁이 현격히 완화될 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장학금 지급은 허울좋은 명분

정원 외로 기여입학자를 입학시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기여입학자를 정원 외로 입학시킨다면 대학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제도는 당초 취지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때에도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독자적 권위가 인정되고, 그 권위가 건전하게 발휘되어,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입학시키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 풍토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여입학제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하지만 적지 않은 부실 사학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많아 결과적으로 또 다른 사학 비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실정 무시한 주장

그 동안 일부 사립대학들이 무리한 시설 투자와 더불어 국립대학보다 높은 수준의 교직원 보수를 책정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재정 조달 구조상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며 재단이 영세하기 때문에 전입금 확대도 어렵다. 이러한 사립대학 처지로 볼 때 기여입학제 도입을 요구하는 배경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기여입학제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사설

종단과 학교, 책임있는 노력 함께 해야

일산불교종합병원 상량식이 열린 지난 20일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는 조계종 총회의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주최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진단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본교 불교대학의 학문적 성과를 점검하고 불교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종단에서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서 한 재야 학자는 본교 불교학부 교수의 연구업적이 국내외 교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종단은 지난해 '동국학원 위상과 발전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동국학원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최근 동국학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종단측의 말처럼 분명 지적과 비판은 한 집단이 더 나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 개최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과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과연 본교 불교학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이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세미나가 어떠한 계기로 취지로 이뤄졌는지 간에 학교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불교학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불교대학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늘리는 한편 불교대학의 발전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종단 역시 토론자로 참여한 연세대 신구택 교수의 지적처럼 불교학 제정을 제시하는 동시에 종립학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종단의 정치·행정적 지원이외에도 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은 불교학이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종단이나 재단, 학교가 하나가 되어 책임 있는 노력을 같이 할 때 동국대 불교학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서 한국 불교의 발전방향도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불신 깊어져가는 경주캠 학생회

지난달 27일 경주캠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 및 자치기구장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수첩문제와 등록금 협의에 관한 공개좌담회는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수첩문제는 불투명한 수첩제작과정과 수첩 내에 상업광고가 실렸던 것이 문제가 돼 거론되었던 것이다. 총학생회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며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수첩 내에 있는 상업광고가 반 이상 남아있는 점과 수첩제작 과정상의 불투명성에 대해 확실한 언급이 없어 총학생회 회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한편 등록금 협의에 대해 대개투 손석우 위원장과 위원들은 앞으로 등록금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그간의 문제점들에 대해 학생들 앞에서 깊이 사죄했다. 물론 등록금 협의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끝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등록금 협의의 시발점인 1월에는 무엇을 했기에 이제부터 최선을 다한다며 말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껏 학생들의 신뢰를 잃어오던 학생회에서 등록금 최종 납부일까지 얼마만큼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다음날 있었던 중앙운영위원회가 단 3명만의 참여로 무산돼 이러한 의문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좌담회 자리에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최선을 의치던 위원들의 말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좌담회 자리에서 대개투 위원장에게 책임감을 운운하며 비판하던 그들의 모습은 중운위 자리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것이 아직 시작단계인 지금 학생회와 학생회간, 학생회와 학생간 점점 깊어지는 불신의 골을 보고 싶다면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논란

농민생계보다 무역자유화가 우선인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곧 우리 농업의 몰락이다"

지난 달 5일 주요 일간지에 전국농업협동조합장 이름으로 실린 광고 내용이다. 같은 날 정부종합청사 앞에 2천여 농민이 모인 가운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전국 농민대표자 회의'가 개최됐다.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농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칠레를 중남미 공산품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정광훈 의장은 "값싼 칠레산 농축산물이 관세 없이 들어올 경우 국내 농가 피해는 연간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며 지난해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국내 과채류 가격 대폭락을 가져온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지적한다. 중남미 국가사이에 원산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상품이 중남미 시장을 석권한다는 것은 순진한 희망에 불과하다는 말도 덧붙인다.

서울대 김완배(농업경제학) 교수는 "칠레 공산품 관세율은 현재 9%에서 계속 낮아져 2010년에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라며 몇 년만 기다리면 공산품 수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텐데 협정체결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칠레와 우리의 계절이 반대여서 국내 농산물에 별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현실을 모르는 낙관이라는 비판도 있다. 전농 이호중 정책부장은 "칠레 과일산업은 현대화된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출하시기가 따로 없다"고 말한다. 또한 칠레 농업을



미국계 기업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칠레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더욱 힘을 발휘하기 위한 구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WTO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 정부가 칠레와 협정을 맺지 않는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다. 실익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무역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을 예외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강국인 칠레와의 협정은 피하고 있고, 캐나다나 칠레와 협정을 맺었지만 '신선과일'은 제외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무역장벽이 완화되는 추세에도 많은 나라들은 자국 농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 논리만 내세워 협상을 추진한다면 이미 여러차례 난타 당한 농민들을 더 이상 일어서기 힘든 상태로 내모는 것이 된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농업부문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Dongguk University Press,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addresses for Seoul and Gyeongju offices.

4.19기념 제32회 동국인 등산대회

4.19혁명 41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참 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등산대회는 4.19정신의 계승은 물론 개교 95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이오니 모든 동국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1. 행 사 명 :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2. 일 시 : 2001. 4. 13(금), 08:30 ~ 17:00
3. 장 소 : 북한산(집결장소 : 419 국립묘지)

* 등산경로 : 4.19기념탑(개회식)→백련사매포소→대동문→보국문→중성문→대서문→북한산성매포소→북한산성매포소 앞 주차장(시상식 및 폐회식)

* 등산로에 표식 리본을 설치하였으니 산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행코스 곳곳에 안내 및 의료지원팀(하얀모자 착용)이 있으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4. 교통편
가. 시내버스 : 6번, 6-1번, 16-1번, 8번, 8-1번, 23번, 28번, 333번 (4.19 국립묘지 입구에서 하차, 도보10분)
나. 지하철 : 4호선 수유전철역(마을버스 및 학교(서둘버스) 이용)
다. 셔틀버스 3대 운행 : 4호선 수유전철역 5번출구 → 4.19 국립묘지 입구(운행시간 : 07:40 ~ 10:00)
5. 참가대상 : 교·직원, 학생, 동문, 법인 등 모든 동국가족
6. 행사내용 : 4.19 기념 추모식, 등산대회 및 시상식
7. 팀 구성
가. 4인 1조팀 : 학(부)과,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구성
나. 학과 단체팀 :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수 2인 이상 참가
다. 동아리 단체팀 : 30명 이상으로 구성, 지도교수 참가시 가산점
라. 행정부서 단체팀 : 행정부서 단위로 구성(기획인사처, 대외협력처, 교무처, 연구처, 사무처, 정보관리실, 중앙도서관)

- 8. 시 상
가. 4인 1조팀 : 총12팀 시상
최우수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자연보호상 5팀
나. 학과단체팀 : 금상 1팀(₩1,000,000), 은상 2팀(각 ₩500,000), 동상 3팀(각 ₩300,000)
다. 동아리단체팀 : 2팀 각 ₩300,000
라. 교직원단체팀 : 금상 1팀(₩500,000), 은상 2팀(각 ₩300,000)
마. 장기자랑상 : 10팀(4인1팀 기준) - 시상식 장기자랑에 참여한 모든 동국인
바. 행운상 : 참가 학생 중 행운권 추첨을 통하여 하계방학 기간내 개교 95주년 기념 21C 지도자 연수의 일환으로 금강산 연수(00명)를 보내드립니다.
사. 단과대학 특별상 : 단과대학 소속 교수 전원이 참여하는 단과대학에는 특별 상금 ₩1,000,000을 지급합니다.

- 9. 접수기간 : 2001. 3. 26(월) ~ 4. 11(수) 09:00 ~ 17:00.
10. 접 수 처
가. 학과단체팀 : 각 단과대학 교학과
나. 4인 1조팀, 동아리단체팀 : 학생처 학생복지실(본관 3층)
11. 유의사항
가. 접수기간내 접수한 팀에 한하여 시상 및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나. 시상식(폐회식)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팀은 시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학과단체팀 및 동아리단체팀은 반드시 명단을 제출하여야합니다. (접수양식은 각 단과대학 교학과나 학생복지실에서 배부)
라. 학과단체팀은 행사당일 행렬의 선두와 후미에 세울 깃발 2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우천시에도 대회는 진행됩니다.(우산 또는 우의는 개별 준비)
바. 도시락은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쓰레기 봉투도 필히 준비)
사. 기타 등산대회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생복지실 ☎ 2260-3047~8)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 행운상 추첨을 위한 행운권은 행사당일 출발전 대회본부에서 배부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서울캠 학생처

동약로

마지막 추위



“저 사람 뭐하는 거야?”
 “그러게, 감옥에 수의를 입고 앉았어!”
 봄에 불어닥친 꽃샘추위와 때인 눈발 속에 학생들이 옷깃을 여미며 불상 앞 농성을 신기한 듯 쳐다본다.
 지난달 26일부터 불상 앞 모형감옥에서 수의를 입고 학생들이 감옥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서명하고 가세요!”
 마이크를 통해 서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목소리가 간절하다.
 총학생회와 학생복지위원회가 감옥농성과 서명운동을 통해 학생대표자 수배반대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학생들의 힘을 모으려는 것이다.
 이들이 농성을 통해 외치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50년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양심수로 만들고 있다.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도 해를 넘기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고 수많은 이들이 명동성당으로 모여들었다. 여전히 무기한 감옥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동약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생대표자들의 수배 해제를 위해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세요!”
 그러나 마이크를 통해 울리는 목소리가 동약을 울린 뿐 서명을 하겠다는 학생들의 발길은 뜸하다.
 비록 모형 감옥이었지만 하루빨리 이 철창살, 국가보안법이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옥 안에서 우리학교 4명의 수배자들을 때울리머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하루동안 모형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학생들의 소감이다.
 불상 앞 철창살에 갇혀있는 학생대표자들.
 학생들을 위해 당당히 일할 수 있는 대표자의 자리는 학생들이 만들어 줘야 한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파출 라데라 강연

올바른 역사규명으로 미래를 연다

남아공 ‘타산지석’ 삼아 과거청산에 국민관심 필요



지난달 29일 '남아공 과거청산의 경험과 한국 과거청산의 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0세기는 전쟁의 세기이자 국가폭력의 세기였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응분의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보다 과거청산 부분에서 앞선 경험을 배우고자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활동해온 파출 라데라 박사를 초청했다. 라데라 박사는 지난달 29일 민주화운동정신승연대회와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인혁당 대책위 등 민간단체 주최의 토론회에 참가해 “30여년에 걸친 인종차별과 가혹

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진실과 화해위’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올바른 역사규명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인혁당 대책위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라데라 박사의 과거청산 경험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실질적으로 남아공에 민주국가가 수립된 지는 7년여 정도로 ‘인종탄압국’이란 오명을 청산하기 위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 남짓 청문회, 자료수집 등을 통해 2만 4천여건의 피해접수를 받았다. 위원회는 의문사 뿐만 아니라 체포 가혹행위, 고문 등에 의한 피해자도 접

사진/김윤미 기자

수받아 조사자료를 확보했고 직접 찾아가서 진술을 듣는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였다. 이중 과거를 반성하고 인권 침해를 고백하는 가해자를 사면하여 용서하는 방식을 통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들도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법제와 과정에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별법 제정시 △모든 위헌 법령시 공개지명할 것 △사면청문회는 방송, 신문보도 등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73년도 인혁당 사건으로 의문사한 최종길 교수의 아들 경희대 최광준 교수(법학)는 “우리나라 특별법상에는 조사관의 조사권이 미약하고 조사권은 있으나 수사권, 체포권이 사실상 주어지지 않고 있다. 관련자를 소환해도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면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법적 한계를 넘어 과연 일반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라데라 박사는 “물론 한계는 있으며 과정에서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집중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토론을 끝내며 라데라 박사는 “사면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한국 의문사 규명위가 수립된 전 의문사들의 진실을 밝히기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특별하지 못한 특별법

진상규명에 난항 ... 관련법 개선해야

특별법이 제정된 경우는 5·18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및 거창사건 특별법, 민주화운동 보상법 및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들 수 있다.
 5·18 특별법으로 광주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 형량이 부과되었고, 5·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책임과 처벌의 문제가 제한적이나마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5·18 특별법은 과거청산문제에 관한 한 가장 진전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가해자가 곧바로 사면되었고,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주로 보상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갖고 있다.
 제주 4·3사건 역시 그 동안 관련단체나 학계, 언론의 절기한 문제제기의 결실로써 99년 12월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전문위원 선임, 시행령 확정을 둘러싸고 관련 단체와 정부간에 큰 진통이 있었으며, 이제사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까 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 피해 사실 여부, 억울한 피해자의 범위를 둘러싸고 진상규명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좌익으로 분류되어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문제는 가해자의 입장에서선 양보하기 어려운 변화이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경우 민주화 운동의 개념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관련자, 노동운동가를 민주화운동가로 포함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쟁점 가운데 보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 중심의 보

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과거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훼손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세력이 면죄부를 받게 되며 △의문사의 진상규명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의 경우 애초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생명권 침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의문사’만을 조사하는 특별법으로 결론이 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80여건에 대한 조사 결정이 내려져 각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관한이 약하고 △조사기간도 짧으며 △조사는 할 수 있어도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하고 △양심선언자에 대한 사면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항·처벌조항 등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정신승연대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보와 양심선언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법개정운동을 추진 중이다.
 독재를 뒷받침했던 법들이 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 청산이 시작되면 국가폭력의 피해사실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 등은 망각되어 버리고 오직 국가가 개인적 피해를 구제하는 양상을 지니게 된다. 과거청산 운동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원상대로 복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사회·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서총련이여 단결하라!”

20차 대의원대회, 중앙대 개최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간 20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서총련은 같은 날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참가한 후 중앙대로 자리를 옮겨 오후 10시부터 사전 행사를 벌였다.
 개막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시작했다. 이어 연세대와 경기대 학생회장이 서총련단식농성단·실천단 대표로 모범상을 수상했다. 이후 우리나라, 조국과 청춘 등 문예공연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서총련 임시의장의 결의발언으로 개막제를 마치고 시작된 본 회의에서는 △인사체계 활동보고 △의장선출 △강령개정 △총선 확정 등이 계속됐다.
 제14기 서총련 의장 후보로는 임시의장 김주훈(홍익대 총학생회장), 박우담(경기대 총학생회장), 장정규(연세대 총학생회장) 등 3명이 출마했다.
 서총련은 대의원대회 이후 20차 정기대대 성사보고 및 6·15공동선언 실현,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를 위한 서총련 결의대회로 이날 행사를 마쳤다.



지난달 23일 'NMD·TMD 강행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결의대회'가 종묘공원에서 열렸다. 미국의 야욕을 상징하는 성조기 NMD 미사일. 이 미사일이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것을 거부하며 전국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NMD 반대'를 외치고 있다.

문익환 목사 방북 12주년 토론회 열려

문익환 목사 방북 12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오늘(2일) 3시부터 두시간 동안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분교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와 민화협 순장재 상임의장의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강정구 교수는 ‘통일방북과 남북의 통일사상’이란 주제로 문익환 목사 방북의 의미와 통일운동에 끼친 영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민화협 순장재 상임의장은 문익환 목사가 생전에 주장했던 3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이밖에 민주노동당 최규명 통일위원장과 전국연합 정대원 사무처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된다. 12년전 TV화면 속 문익환 목사가 북의 김일성 주석을 부둥켜안고 ‘4·2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를 때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속에서 자라난 통일국의 싹은 오늘날 남북화해무드를 조성한 발판이 됐다.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전기가 열리고 있는 지금, 남북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4·2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통일을 준비하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병무청 주요제도 개선 내용 안내

국외이주사유 병역감면자에 대한 병역관리 강화
 국외이주자의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 제한
 병무청(청장 오경록)은 외국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여 취업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그동안 외국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이주자가 국내대학에서 학칙만 보유하고 연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교묘히 회피해 온 사례들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국외여행 귀국보증인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
 또한, 국외여행 귀국보증인 중 연대보증인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인 선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장기대기 제2국민역 편입
 한편,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보증인에 편입되거나 연기사유가 해소된 다음 해부터 고졸 이하는 3년, 고졸이상은 4년이 경과하는 해의 1월1일부터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익근무요원 수요가 없는 낙도 등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소집대상자와 학력이 낮아서 장기간 소집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정상취업은 물론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등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약 4천 5백여명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졸이하의 사람으로서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과 정신과 질환자, 문신자해 등의 사유로 보증인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도 소집통지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 제2국민역에 편입처분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왔던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 발생을 또한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밖에도 산업기능요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는 전직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조정하여, 산업기능요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산업체에서의 인력활용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한편, 이번 병역법시행령 개정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ttp://www.mma.go.kr 공보담당관실 Tel. 02)820-4701~3 042)481-2701~3

홀로서기와 관계맺기 교육프로그램
결혼할까? 혼자살까?

여학생실에서는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확립과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결혼할까 혼자살까'를 실시합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맺기 기술을 익히지 못한 채 성인을 맞이하는 대학생들에게 관계맺기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타인(특히 이성)과의 성숙한 만남을 준비하고, 지속적인 만남에서 생겨나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꼭

- 자아정체감 형성
- 타인과의 관계형성 능력향상
- 민주적 남녀관계 형성
- 사고·감정 및 행동통합의 인격체 형성
- 의사소통기술 향상

이로써, 자율적 행동과 책임감 있는 주체로 이룰 것입니다

1) 내용 및 교육일시 : 2001년 4월 12일 ~ 5월 3일, 매주(목) 오후 4:30 ~ 6:30(2시간)

회차	날짜	제 목	강 사	진행방식
1	4/12	자기 알리기와 새로운 나의 이해	황정해(강사, 아동·가족전공)	이론·토론·실습
2	4/19	나와 타인과의 관계 : 색유얼리티	서수경(강사, 아동·가족전공)	이론·토론
3	4/26	나의 일거리를 찾아서	이해영(강사, 아동·가족전공)	이론·토론
4	5/3	결혼할까? 혼자살까? (홀로서기와 관계맺기 교육프로그램)	통 합	이론·토론

2) 접수 및 장소 : 2001년 4월 2일 ~ 4월 10일(커피원영, 선학순마감)
 계산관 (사법대 일건빌)

3) 정 원 : 15명
 4) 참가비 :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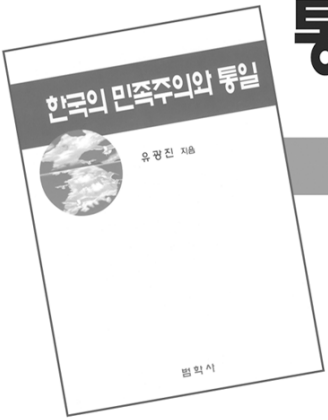
* 기타 문의는 여학생실(2260-3056, 계산관 1층)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 학 생 실

서평

통일, 민족의 이름으로 하나되기

민족주의로 대립관계 해결 ... 남북 화해 · 통일 염원



김상현 교수의

역사이야기 (2)

젊은 날의서원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서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서한다. 지금부터 3년 이후 충도(忠道)를 지켜서 과실 없기를 맹서한다. 만약 이 일을 어기면 하늘의 큰 죄업을 짓을 맹서한다.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크게 어지러운 세상이면, 가히 용납될 수 있도록 행할 것을 맹서한다. 또 따로 신미년 7월 22일에 크게 서원했다. 시경·상서·서경·예기·좌전을 차례로 습득할 것을 맹서하되, 3년으로 하였다.

하늘이 굽어보는 앞에서 신미년에도 맹서했다. 그들은 유가의 주요 경서를 공부하고자 했고, 어지러운 세상에도 과실 없기를 서원했으며,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기를 맹서했다. 이들은 자기 충실과 사회 봉사를 함께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이 무렵 신라 사회에는 화랑도로 대표되는 젊은 청소년들이 내일을 향해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들은 삼마도의(相磨道義)하고 정심수신(正心修身)하여 잘못 없기를 염원하며, 자신을 닦아 내일을 기약했다.

군자를 꿈꾸던 귀산과 추항은 원광법사를 찾아가서 세속오계의 가르침을 받았고, 화랑 김유신은 종약의 석굴에서 삼국통일의 열의를 맹서하고 기도했으며, 남도 검군은 대장부의 기상으로 살고자 했다. 이러한 기풍은 임신서기석에도 강하게 스며 있다. 이들이 훗날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 임신서기석은 경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금석문이 발견되었던 경주 석장동의 언덕에는 경주캠퍼스가 자리잡고, 학생회관 앞에는 신라 젊은이의 맹서를 다시 새긴 비석이 하나 서 있다.

그리하여, 신라의 옛 맹서는 다시 이 시대 젊은이의 서원으로 꽃피어 난다. 꿈 많은 젊은 시절에는 내일을 향한 서원도 크다. 스스로 다져 보는 맹서, 그 서원을 굽이 돌에 새기지 않아도 좋다. 마음에 새기는 서원이 크고 단단하기만 하다면.

서원의 힘은 크다. 젊은 날 마음에 새긴 서원은 일생 동안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된다. 서원은 어렵고도 아슬한 세상을 건너 줄 튼튼한 다리라도 같은 것이다. 10바라릴 중에 원바라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 까닭이다. 서원은 감옥과도 같은 것이다. 화살이 날고 칼이 번뜩이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옥을 갖추어 입어야 하듯,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이라는 튼튼한 감옥을 입어야 한다. 물론 그 서원이 자신을 비추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것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한국 민족주의는 단지 ‘반봉건=근대화’라는 과제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신감의 회복, 즉 민족자주성 회복, 내부 분열의 지양, 즉 국민적 통합과 국토통일이라는 과제를 아울러 지니고 있다”

반민권운동만 단일 민족사회를 형성해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이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사업이 되었다.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민족은 친일과 반일로 나뉘어졌고, 해방 이후에도 외세의 간섭과 민족 내부의 갈등으로 단일 민족국가 건설을 못하고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반세기 이상 지속하고 있다.

남과 북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대립·반목한 결과 이제 남북은 ‘자본주의 민족’으로, 북쪽은 ‘사회주의 민족’으로 정치사회화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민족은 동질적인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분단 이후 상호교류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해왔기 때문에 이질화가 매우 심화됐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유희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과정과 통일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과정에서 남과 북은 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통일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분단의 극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번영이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이다.

남북관계 변화 낙관적 전망

이 책의 저자인 유광진(정치외교학) 교수는 민족적 과제인 통일문제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30여년간 연구해온 한국 민족주의와 통일 및 북한문제 연구의 권위자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발표한 논문을 일관된 체계를 갖추어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문제의 이론과 실재를 모두 3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제1부는 ‘민족주의와 남북한’(한국의 민족주의, 남북한관계와 민족주의)으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제2부는 ‘통일접근의 쟁점과 수렴가능성’(남북한 통일접근의 쟁점, 혁신정

당의 이념 정책과 통일정책, 남북한 통일문제의 수렴가능성)으로 남북한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부딪히는 쟁점에 대한 수렴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제3부는 ‘남북한관계의 변화와 통일’(남북한관계 변화와 통일,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와 변화가능성, 한국의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21세기 세계질서와 남북한)로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남북관계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전망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통일문제에 있어 민족주의가 요청되는 이유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감정적인 ‘적’ 개념의 첨예화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면서, 민족주의를 ‘기본적인 준거’로 삼아 민족 재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민족주의는 단지 ‘반봉건=근대화’라는 과제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신감의 회복, 즉 민족자주성 회복, 내부분열의 지양, 즉 국민적 통합과 국토통일이라는 과제를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민족주의는 이러한 역사적 과제들을 완수하지 못했다.

저자는 “21세기 한반도 체제(남한)가 분단 이후 남북한이 추구하여 왔던 목표개념인 경제발전,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통일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화해·협력에 변함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 공존·공영의 동반자

남북한은 분단 55년만인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우리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남북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남과 북은 ‘먹고 먹히는 통일’ 또는 ‘적화통일과 흡수통일’을 거부하고 화해·협력, 공존·공영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

민족통일의 당위성

지금의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형’과 ‘내정형’의 복합적 산물인 점에서, 분단 극복은 외세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내부갈등을 극복하는 통일지향적 자세와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외세에 의해 타율적으로 주어진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키워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민족통일을 달성할 것인가는 우리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의 신질서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서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이 책의 저자는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남북화해와 통일의 길을 여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민족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 볼 것을 권하면서 서평을 마치려 한다.

고유환
사교대 북한학과 교수

‘장(場)’에서 만나는 건축의 세계

지산공모전 2명 수상 ... 대상 황성환 · 은상 정민재

우리의 옛 가옥은 여성들의 주된 생활공간인 안채, 남성들의 학문 탐구의 장인 사랑채, 일꾼들이 사용하는 행랑채 등 그 공간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엄격하게 구별했다. 또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안채는 대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잡았던 것처럼 용도에 따라 공간 위치도 달라지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각각의 구조물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모아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지난달 지산장학회는 참신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건축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2001 지산학생건축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는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앞두고 대구를 보다 나은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대회이기도 했다.

이번 공모전은 21세기의 시작에 발맞춰 지난 해부터 3년간 ‘문(門)-장(場)-관(館)’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하나의 건물에 그치는 설계가 아니라, 전체 조화를 고려해 각 구조물과의 연관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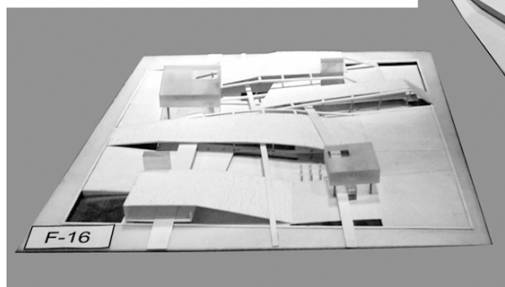
중요시한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크다.

파리의 개신교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사랑채, 전망대 등으로 이용돼 실용적 측면까지 겸비하고 있다. 지난해 주제인 ‘문(門)’도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섬유도시라는 대구의 특징을 상징하면서 미래 정보사회에 대비한 여러 기능을 두루 갖춘 도시관문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문(門)을 통해 도시에 대한 첫인상을 느낀다면, 이어 ‘장(場)’이라는 마당은 옛 사람들이 도성 안을 생활의 터전으로 여겼던 것처럼 구체적 활동을 요구한다. 이번 공모전은 이 ‘장(場)’을 ‘건축박물관’으로 설정해 사람들이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건축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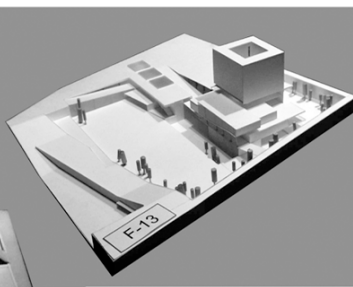
올해 공모전에서는 분교 건축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황성환 군과 정민재 군이 각각 대상과 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황군의 ‘Inter-Textuality’는 이질적 느낌의 도시와 자연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킨 작품이라는 평이다. 그리고 전면에서 느껴지는



수직적 문(門)의 딱딱함을 물결치듯 흐르는 지붕의 부드러움으로 융화시켜 다른 작품과 차별성을 두기도 했다. 이에 황군은 “도시에서의 장(場)을 도시 그 자체로 풀었다”며 “도시적 텍스트에 지붕을 녹여내서 깔아 편안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Place and Identity’로 은상을 수상한 정민재는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불상 주변으로 모이는 학생들을 보고 작품의 컨셉을 떠올렸다”며 “장(場)의 뚜렷한 공간적 의미는 상징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정민재 군의 은상작 - Place and Identity
- ▲ 황성환 군의 대상작 - Inter-Textuality

마지막 주제인 ‘관(館)’에서는 대구의 이미지를 총 정리하는 기념관으로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이로써 이번 기획은 내년에 마무리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대 이정호 교수는 “문(門)-장(場)-관(館)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하나의 이상적 건축공간을 만들어 낸다”며 “건축산업에서 갈수록 독자적인 단일 건물보다는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되는 설계가 각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미르호의 생애...’ 공개 세미나

천체관측 동아리 자연과학연구회(회장=이우영·반도체2, 이하 NSA)는 지난달 30일 ‘미르호의 일생, 2028년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미르호는 1986년 구소련에서 발사된 최초의 우주정거장이다. 그동안 약 8만18천번 지구궤도를 돌며 지구상에서 불가능했던 무중력 실험들을 가능케 했던 장본인인 것이다.

그러나 미르호를 유지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과 계속되는 궤도 이탈, 우주선 도킹 실패 등으로 미르호는 폐기돼야만 했다. 따라서 15년간 우주공간을 떠돌며 활동하던 미르호는 지난달 23일 남태평양으로 떨어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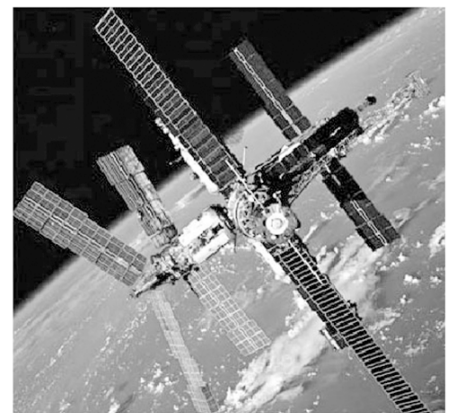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이날 ‘미르호의 일생’에 대해 발제한 이우영 NSA 회장은 “비록 미르호는 폐기됐지만 인류가 본격적으로 우주활동을 벌이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발제도 함께 진행됐다. 지구로 근접해 통과하는 2천여 소행성의 규모나 무게, 구성성분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지름 1.6km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경우 예상되는 지진이나 화산폭발, 산성비 등의 피해들을 분석했다.

특히,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지면 영화 ‘딥임팩트’에서 본 내용처럼 파도, 해일 등이 거세게 일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세미나를 정리하며 이우영 회장은 “계속적인 관측으로 학생들에게 우주에 대해 알려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고수동정

▲송석구 (철학) =지난달 13일 열린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돼 6월 이사회부터 이사로 활동 예정.

▲김영민 (영어영문학)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덴버, 콜로라도에서 열린 '3rd Hopkins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가.

▲이승영 (국제통상학) =오는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천진, 북경에서 한국무역학회가 주관하는 '장보고 무역체합' 인솔.

▲김주환 (경주캠프 정보통신학) =지난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이탈리아 피렌체대학교로 '국제수준에서의 식량농업통계의 품질' 연구를 위해 파견.

▲김선근 (인도철학) =지난달 29일 일본 주재 승왕달라이라마 동아시아 대표인 자물린포체 초청강담회 개최.

▲곽노성 (국제통상학)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농업협상'에 참가.

▲조영석 (경주캠프 컴퓨터학)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01 World Wide ERC' 참가.

▲박명숙 (경주캠프 가정교육학) =지난달 1일부터 1년간 '사회 소비자 중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해 미국 콜롬비아로 파견.

자유소식

작은 영화제

서울캠 영화영상학과는 통계 워크샵 작품과 수업 과제 출품작을 모아 작은 영화제를 연다.

총 30분 분량의 '오렌지', '문(門)', '아침이 없는 서점',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가위바위보' 등 다섯 작품이 매회 상영된다. 창의적인 단편들의 신선한 감각을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오늘(2일)까지, 7시, 90주년 기념문화관 지하 2층 스튜디오에서. 문의 2260-3671



제1회 오름제, 오는 5월 개막

한국대학연극연맹 오름(회장=김병석·고려대 신방3)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대학로에서 제1회 '오름제'를 개최한다.

김봉이와 노노관, 연극관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구성되는 이번 '오름제'는 관객과 공연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자유로운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교 민속극연구회 '탈'은 축제 첫날 개막제를 여는 길놀이로, '극예술연구회'는 폐막제를 맡는 공연 '아름다운 사인'으로 오름제에 함께 할 예정이다.

문의 3672-4123

민요협, 전통민요음반 출판

한국민족음악인협회(회장=김철호, 이하 민요협)는 김애경(소리박 연구소 대표) 씨와 어린 이들이 함께 부른 민요음반 '점아점아콩점아'를 출판했다.

민요협은 이 음반을 통해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 전통 음악을 어렵고 지루한 것으로만 여기는 젊은 세대에게 흥겨운 우리 소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민요를 알리기 위한 음반 '점아점아콩점아'는 현대적 감각으로 편곡한 민요와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창작곡악동요 등을 담고 있다.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4월 일정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장=김정숙, 이하 문예진흥원) 주최 공개문화강연 '금요일의 문학이야기'의 4월 초대작가와 일정이 확정되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대학로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열리는 '금요일의 문학이야기'는 독자들과 작가가 마음을 열고 만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날짜	작가	이야기 주제
4/6	허영지	시와 현대의 삶
4/13	하일지	작가란 무엇도 말할 것이 없는 존재다
4/20	조정래	태백산맥을 쓰던 시절
4/27	이승우	소설과 신(남양주 문학기행)

혼돈의 죽음



송재운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남해 제왕은 이름이 숙이고, 북해 제왕은 이름이 흩어지며, 중앙 제왕은 혼돈이라 불렀다.

숙과 흩은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서로 만나곤 했는데, 혼돈은 그들을 잘 대접하였다. 숙과 흩은 이러한 혼돈의 덕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상의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일곱개의 구멍이 있어서 이것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먹기도 하고, 숨도 쉬는데 유독 이 사람(혼돈)만이 없으니 우리들이 그에게 구멍을 뚫어 줍시다"

그래서 혼돈의 얼굴에 하루에 구멍 하나씩을 뚫었는데, 7일이 되는 날 혼돈은 죽었다.

마침 만우절에 떠 올러 본 장자의 우언이다. 우언이란 역시 꾸민 말이지만 요즘 우리 사회의 만우절에 하는 것

같은 거짓말은 아니다. 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언의 말속에는 깊은 철학적 진리가 들어있고, 인생을 관조하는 맑은 지혜가 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신선한 상상력과 깊은 통찰력을 갖게 만든다.

위의 이야기는 장자 내편 가운데 플레인 응재왕 마지막 장에 나온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남해의 숙은 상(像)이 있는 것을, 북해의 흩은 형(形)이 없는 것을, 중앙의 혼돈은 청탁을 구분하지 않는 자연을 비유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숙과 흩은 인위(人爲)를, 혼돈은 무위(無爲)를 상징하고 있다. 쓸데없는 인위의 조각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는지 들려주는 것이다.

일곱개의 구멍은 하나의 입, 두개의 눈, 두개의 콧구멍, 두개의 귀를 말한다. 사람은 이것들이 얼굴에 있어 사람

달하나 천강에 달 하나 천강에

구실을 한다. 그러나 혼돈은 이것들이 없는 게 정상이다. 혼돈 그대로가 본래의 자기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숙과 흩은 이 혼돈을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려다 그만 생명을 잃게 만든다. 그대로 두었다면 온전한 생명을 보전할 것인데 인위적인 역치를 가한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지금 제주도에는 헤이릴 수 없이 많은 구멍이 뚫리고 있다. 숙과 흩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구멍을 뚫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물을 캐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하나의 혼돈(자연)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만우절에 장자의 우언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 그의 무위사상이야말로 오늘날 극단적 인위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제가 아닐까 해서이다.

신(新) 삼국지, 출판업계 주도권 분쟁

도서할인율 10%에 합의 ... '서점조합연합회' 반발 예상

한(漢) 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후 4백년이 흘러 황제권이 약해지고 민심은 도탄에 빠져 천하는 혼란이 극에 달한다. 각지에서는 영웅호걸들이 일어나 위, 촉, 오의 삼국으로 분열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삼국의 혼란기를 '삼국시대'라 부른다.

비야호로 2001년 우리 출판업계는 on-line서점, off-line서점의 갈등과 전자책의 등장으로 출판시장을 둘러싼 파투기는 삼국시대가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on·off-line서점의 갈등은 인터넷 서점들이 속속 등장, 10%에서 많게는 8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면서부터 첨예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높은 할인율은 자연스럽게 네티즌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on-line서점에는 활성화, 취약한 유통구조의 off-line서점에는 큰 타격을 가져왔다.

여세를 몰아 on-line서점들은 도서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무료 배달 등 파격적 조건으로 소비자들을 휘어잡았다. 이는 지난 한해 off-line의 전국 영세서점 1천여 개가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임과 동시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측이 on-line서점에 납품하는 출판사와 거래를 중단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한국출판인회의'와 '인터넷 서점협회(가칭)'가 도서할인판매율에 관해 합의, 그간의 논쟁에 잠시 완점을 찍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인터넷 서점들에 대해 10% 이내의 도서 할인판매율 5% 이내의 마일리지 적립을 허용하며, 우송료는 소비자 부담으로 별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출간된 지 1년이 지난 서적에 대해서는 출판사가 지목하는 서적에 한해 개별적으로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하다.

이 합의에 따라 인터

넷 서점들은 그동안 시행해 왔던 할인판매 방식을 이번 달 10일부터 전면 개선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를 둘러싼 출판사와 인터넷 서점들의 갈등은 일단 진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한국출판

인회의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는 별도로 추진한 on-line서점과의 협약이기 때문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점조합연합회측의 한 관계자는 "일방적인 출판인회의만의 생각일 뿐"이라며 "서점조합연합회는 여전히 도서정가제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앞으로 출판업계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성탈인(先聲奪人)'은 진(晉)나라 군대가 정나라를 구하기 위해 초나라 군대와 충돌했을 때 '남보다 앞서 이기려면 단번에 상대방의 기를 꺾어야 한다'는 손숙오의 말에서 유래된 말로 우선 자기의 성세를 올려 상대방을 위압하거나 한 발 앞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협약의 '선성탈인' 대상이 on-line서점일지 off-line서점일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한 가지 잊지말아야 할 것은 소비자 자기가 없는 출판시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손상민 기자 ne9292@dongguk.edu



'리멤버 타이탄' 시사회를 다녀와서



인종의 벽 허물고 국적을 뛰어넘어

색깔이 불안전해서 빛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나 그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색맹이라 부른다. 색맹은 모든 빛깔을 구분하지 못하고 명암만을 구분할 수 있는 전 색맹과 일정한 빛깔만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 색맹으로 나뉘는데 빨간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홍록색맹, 초록색과 노랑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청황색맹이라 한다.

그러나 오는 14일 흑과 백을 구분하지 않는 '흑백색맹'이 새로 등장할 예정이다. 바로 윌트디즈니 픽처스가 제작한 영화 '리멤버 타이탄(Remember the Titans)'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들이다.

성탄절이나 국경일보다 풋볼시즌을 더 큰 축제로 여기는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인종차별금지법'으로 백인과 흑인 고등학교가 통폐합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 학교에 있던 풋볼팀이 '타이탄'이라는 팀으로 합쳐지는데, 이들은 그간 쌓아온 인종차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서로를 경계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러한 인종간의 갈등은 풋볼팀 감독 자리를 놓고도 벌어져 기존의 백인감독 '빌 요스트'와 새로 부임한 흑인감독 '허만 분'의 신경전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허만 분'이 인종에 관한 편견과 차별보다는 풋볼에 대한 열정으로 다가서자 풋볼팀 내부에 서서히 인종을 넘어선 믿음과 우정이 싹트게 된다. '풋볼'이라는 매개체로 하나가 된 것이다.

'리멤버 타이탄'은 1971년 미국 버지니아

주가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다.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는 미국 여타 주의 어떤 도시보다 다양한 인종이 융화되어 살고 있다.

그러나 영화를 보는 내내 떠오른 것은 바로 우리 나라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제3세계 혹은 약소국가 사람들이다. 어느새 우리 주위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이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만이나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우리 나라에서 인종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차별을 받을 뿐이다.

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화'와 관계가 먼 국가들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치는 '세계화'나 '지구촌 한식구'에 포함되는 것은 바로 미국과 영국 등으로 대변되는 서방 부유 국가이고 우리가 함께 하려는 사람들 역시 서방의 부유한 나라 사람들뿐이다. 이러한 잘못된 '세계화'의식이 인종차별보다 더한 '국가차별'의 형태로 무의식중에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 위에 사람없고 사람 밑에 사람없다'는 이야기처럼 사람과 만나고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이지 그 사람의 국적이나 피부색이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국적이나 피부색으로 구분하는 '인식의 색맹'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표은영 기자 pisik20@dongguk.edu

2001 동국대 출판부 신간안내

Http://home.dgu.ac.kr/~book/index.html Tel. 2260-3482~4 Fax. 2268-7851

세계의 문학사로 한·일 양국의 가깝고도 먼 거리를 극복한다

일본 메이지문학사

고재석·김환기 역 / 신국판 / 330면 / 1만2천원



1868~1912년까지 일본현대문학의 태동과 정착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 메이지 시대 문학의 독자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니카무라 미쓰오의 일본 메이지 문학사.

일본 다이쇼문학사

고재석·김환기 역 / 신국판 / 305면 / 1만원



1910~1927년까지의 다이쇼 시대의 문학사를 현장감 있게 기술. 이 시대의 화려함 속에 깃들인 어둠을 보여주는 우스이 요시미의 일본 다이쇼 문학사.

일본 쇼와문학사

고재석·김환기 역 / 신국판 / 392면 / 1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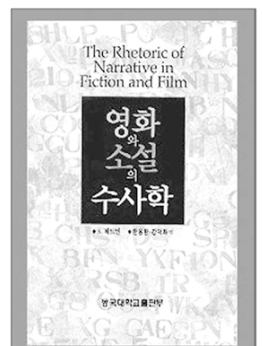
1927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자살에서 패전으로 인한 절망과 재건에 이르는, 쇼와 시대의 문학사를 정신사적으로 분석한 히라노 겐의 일본 쇼와 문학사.

서사적 분야의 명저 '이야기와 담론 - 소설과 영화의 서사 구조 Story and Discourse -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의 뒤를 잇는 또 하나의 역작.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

한용환·김덕화 역 / 신국판 / 320면 / 1만원

'이야기와 담론'의 저자, S-채트만이 십 년의 연구 끝에 내놓은 또 하나의 서사이론의 지침서!



서사학자인 채트먼이 '이야기와 담론'으로 우리에게 언어 서사물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면,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은 영화를 서사적 분석의 중요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야기와 담론'의 한계를 훌륭히 뛰어넘어 영상 서사를 언어 서사와 나란히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매체비평

TV □

몽골리안 루트

“장엄한 몽골, 거대한 계획 그러나 시청자는 눈을 감았다”



몽골리안들의 삶을 재조명한 KBS의 8부작 다큐멘터리 '몽골리안 루트'.

새천년 기획으로 준비기간 10년에 제작기간만도 3년 6개월, 10억여원이라는 국내 다큐사상 최고의 제작비와 20여개국을 취재한 방대한 자료로 기대를 모았던 KBS 특별기획 8부작 다큐멘터리 '몽골리안 루트'가 '조용히' 대장정을 마감했다.

'천년의 제국'을 건설하려 했으나 세기라는 개념을 낳진 것으로 역활을 다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진 유목민족의 '사라진 길찾기'는 세간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 길들여져 백인, 황인, 흑인으로 구분하는 인종개념으로 무의식중에 인종차별에 일조해온 사람들에게 인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고, 1만5천년전 인류의 이동과 확산경로를 추적함으로써 인류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시도는 의미심장하다.

특히 나무 나이테로 기후와 생태환경을 측정하는 연륜측정학, 세형돌날 제작 기술을 복원해 보여준 실험고고학, 대륙 각지에서 발견된 미이라의 유전자 분석해 감마항체 분포도를 근거로 몽골리안임을 입증한 DNA유전학, 앞니의 소배구조로 인종을 구분하는 치아분류학, 추위에 대한 인종별 적응도를 연구한 형질인류학 등 전문연구작업의 과학적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고고학과 인류학에 대한 거리감을 좁힌 것도 성과다.

'몽골리안 루트'는 세계시장에 내놓을 경쟁력 있는 다큐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기획 단계부터 반영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방송 전부터 이미 4개국에 수출 가계약을 맺은 상태라는 자랑도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한국의 몽골리안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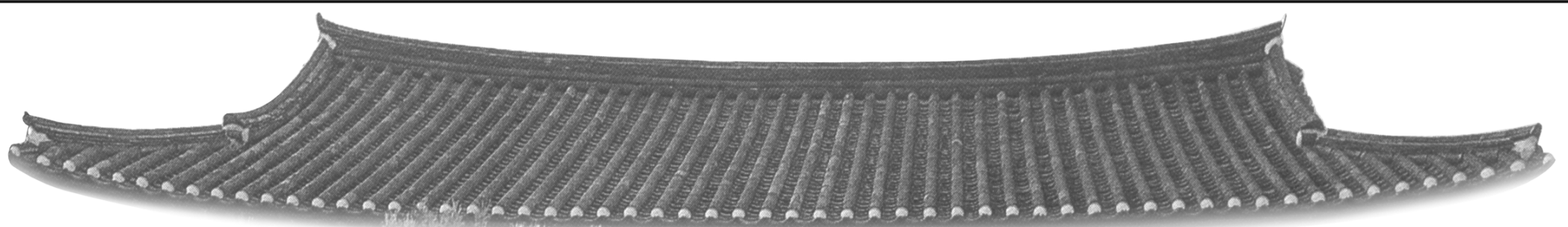
제작진이 밝혔듯이 "징기스칸으로 대변되는 몽고제국의 역사와 풍습을 다룬 다큐"이거나 "몽골인의 뿌리찾기" 아니냐는 오해가 많았지만 '이것이 몽골리안 루트다(1월 30일 방송)'를 통해 프로그램 기획의도와 주요내용을 소개한 것으로는 부족했다. 방송이 끝난 지금까지 유목민의 역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역사학자들도 몽골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룬 프로그램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 회의 내용에서 연계성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웠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2월 6일 방송된 제1편 '툰드라의 서곡'이 프로그램 전체의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하

지 못하고 다소 난해하게 전개돼 시청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도 반성할 부분이다. 회를 거듭할수록 오염되지 않은 자연풍광의 아름다움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연한 고대의 모습, 과학적 고증이 보는 재미를 더했지만 처음에 흥미를 잃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돌리기는 역부족이었다.

'몽골리안 루트'라는 제목 때문에 오히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아쉬운 대작'이 됐지만 서구 중심의 사대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 1만5천년전으로 역사의 지평을 넓히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환경에 순응하며 번영해온 인류사의 장대한 드라마를 TV로 재현하고자 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되길 바란다.

조은숙
매체비평우리스스로 기획부장



김치, 역사를 버무리고 전통을 담는다

"김치 없이 못살아~ 정말 못살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김치민족'이다. 이는 서울대 조동일(국어학) 교수가 한국 사람을 알아보는 세 가지 방법 중 '김치를 잘 먹느냐'라는 항목을 포함시켰다는 사실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김치를 잘 먹는다고 한국 사람인 것은 아니다. 바로 한국의 전통과 김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한국인이다. 과연 당신은 김치를 사랑하는 한국인인가?

난 김치가 싫어(?)

우리의 입맛은 점점 외국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지고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햄버거가 밥이 되고, 콜라가 물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피자 역시 우리 음식이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짬뽕도 마찬가지다. 구수한 된장 냄새와 맛살스러운 김치가 잘 차려진 전통 한식집보다는 세련된 분위기의 퓨전음식을 선호한다. 여기서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여태생은 찾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

시스를 발견하는 꼴이다. 그들은 가까운 슈퍼에서 원하는 양만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김치를 번거롭게 담글 필요가 무어냐고 말한다.

뿌리를 찾아서

어쩌면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김치는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김치의 뿌리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치는 중국 시경에서 '저'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고려중엽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는 '장에 담그면 여름철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인 김치는 겨울 내내 반찬이 되네'라고 소개되어 있다.

흔히 김치 맛의 요모함은 '오색과 오미'라는 말로 해독한다. 김치가 붉은 색을 띠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 도입된 고추 때문이다. 중국에는 '저'라는 김치가 있고, 일본에는 '오싱코'라는 김치가 있다. 그러나 중국 김치나 일본 김치는 무와 배추를 소금에 절여놓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금에 절인 야채의 맛,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한국 김치는 고추라는 변수가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특이한 식감이 된다. 아무리 '오싱코'에 고춧가루를 뿌린다 해도 한국의 김치가 될 수는 없다. 반대로 한국 김치에서 고추 기운을 없애더라도 중국이나 일본 김치가 될 수 없다. 김치를 김치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발효식의 지혜다. 배추는 날것으로 요리하면 썰러드가 되고, 불에 익히면 수프가 된다.

그러나 그것을 사해 먹으면 김치가 된다. 그 맛은 썰러드와 같은 자연의 맛이냐 야채 수프와 같은 문명의 맛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바로 자연과 문명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만들어지는 '통합의 맛'이다.

김치를 먹으면 한국이 보인다

이처럼 김치는 가장 전통적이면서 과학적인 음식이다. 세계는 김치 특유의 매콤하고 짭조름한 맛에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김치는 맛뿐만 아니

라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영양만점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더구나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는 김치는 건강음식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세계 수요량의 85%를 일본이 가로채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인들에게 김치는 '기무치'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다. 그러나 일본에서 재배된 배추로는 김치 종주국인 한국 김치의 맛을 낼 수 없다. 김치는 한국에서 만들어야 가장 뛰어난 김치 맛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김치'가 먼져나, 일본의 '기무치'가 먼져나 하는 터무니없는 논쟁은 그만 두어야 한다. 독도가 우리 땅인 것처럼 김치는 한국의 전통음식이다. 앞으로 김치는 다양한 종류와 조리법 개발을 통해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김치에 대한 우리 민족의 사랑은 김치를 세계 속 한국의 맛으로 자리잡게 만들 것이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이제 박물관에 저장한다?

김치는 무·배추·오이 등을 소금에 절여 고추·마늘·파·생강·젓갈 등의 양념으로 버무리다가 먹는 한국의 전통 발효음식이다.

농경문화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김치는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근 서구식 식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소홀해지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산 김치가 다이어트와 스테미너 증진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 그 인기가 폭발적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김치를 흥내낸 일본제 '기무치'를 대량 보급·수출하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 김치를 다채롭게 다루고 있는 이색박물관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삼성역 코엑스를 지하 2층에 위치한 김치박물관이다.

김치박물관은 지난 86년, 한국의 대표적 전통음식인 김치의 문화를 조사, 연구하고 이를 내외국인에게 홍보하고자 서울시 중구 필동에 설립되었다. 그러다 88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한국종합무역센터 단지 내로 이전, 우리 전통 음식문화의 바른 계승발전이라는 취지 하에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

김치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은 우리 김치의 가치 수 만큼이나 다양하다. 특히 외국인의 방문이 잦아 날이 갈수록 세계적으로 우리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 내 전시관은 △김치의 역사 △여러가지 김치 △김치 만들기와 저장 △김치의 영양학적 효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전시관과 교육실, 시식

실, 기념품 판매소 등 다양한 시설들로 이루어져 김치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지난해 제3차 아셈 컨벤션센터로 확장, 이전한 박물관은 향토김치를 조사, 영상화한 것을 비롯 주부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김치교과를 실시했다. 또한 사찰김치 전시회, 한국병과 전시회, 북한김치 30선 등의 전시를 기획하는 등 일반인의 전통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앞장서왔다.

그 외에도 김치박물관은 새로운 김치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그 중 효도김치는 끓는 물에 데친 무로 담근 깍두기로 나이트 분들의 약한 치아를 감안한 건강식품이다.

김주의 학예연구원은 "김치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정신이 담겨있는 고유 전통문화"라며 "국제적인 관심은 높아지지만 정작 내국인의 관심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한다.

21세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낯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먹거리 문화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해외에는 이미 서양의 피클처럼 저온 보관하거나 방산화제를 첨가하는 등 다양하고 새로운 맛의 김치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세계시장에서 타국의 다양한 김치상품들이 어엿한 경쟁자를 제치고 난무하기 전에,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 김치를 가꾸고 알려 나가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때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맛·재미·관광을 한자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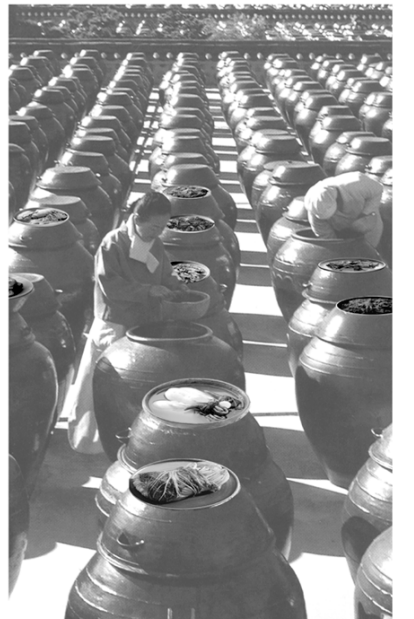
매년 김치가 한창인 11월이 되면 조용하던 남산골 한옥마을에 생기가 돈다. 도심 속에서도 우리네 전통을 지켜가며, 옛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한옥마을에 '김치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3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 축제는 팔도 김치 전시회, 김치 담그기 시연, 외국인 김치 담그기 체험,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어 남녀노소,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특히 팔도김치 전시회에는 전국 팔도의 특이 김치를 비롯해 북한과 사찰 김치가 전시된다. 이러한 전시는 점점 사라져 가는 여러 종류의 김치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흥미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김치 축제'로 유명한 곳이 또 있다. 바로 전국에서 음식 맛이 좋기로 정평난 전라도 광주이다. 매년 가을이면 광주에서는 대대적인 김치 축제가 열리는데 지난해에는 한·일간 식품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개최하기도 해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축제 기간 중에는 김치의 역사, 효능에 관한 강연부터, 팔도 김치·북한 김치 전시와 제기차기, 윷놀이 등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미국의 한 한인회는 미국인들이 '기무치'로 알고 있는 김치의 뿌리가 한국임을 알리기 위해 99년부터 김치 축제를 열고 있기도 하다.

최근 한국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가장 체험하고 싶어하는 것 1위로 '김치 담그기'를 꼽았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먹거리인 김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김치 축제'가 단순히 단발적 행사가 아닌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행사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손상민 기자
ne09292@dongguk.edu

메아리

인문학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학문이 존재하고 있다. 학문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체계적 지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學)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여러 시대를 거쳐 수많은 학자들이 힘들게 세운 학(學)을 그 시대의 이슈나 유행에 따라 남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한국 경제의 산 증인 정주영 씨가 '시련은 있어도 실패란 없다'는 경영철학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정주영은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한국경제의 급성장 즉,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부상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지난 89년 국내 기업인으로서 처음 북한을 방문한데 이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강산 관광, 서해안

공단 건설 등 대북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현 사회는 정주영을 불도저같은 도전 정신과 진취성으로 시대에 적절한 대응한 신화적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가 위기를 맞고 있다. '양자물'의 지분 다툼과 부실경영을 안은 채 강행된 계열사의 직계 상속은 엄청난 카리스마로 그룹을 이끌던 정주영에게 무리한 경영 방식이라는 큰 오점을 남겼

다. 또한 군사 문화적 노사관계로 인한 노조탄압도 국민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다. 지난 92년 무모한 대선 도전으로 현대의 위기를 불러온 적도 있었다.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기업경영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정주영 학(學)' 바람이 일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다음 학기부터 '정주영과 현대그룹'이라는 부제를 단 경영학 특강을 개설한다는 공식발표를 한 것이다. 군

사정권 시대에 걸맞은 황제경영방식이 과연 21세기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한 인문학의 경영방식을 연구하는 것은 좋지만 학(學)이라는 단어를 붙여 서울대학교에서 강의 개설할 만큼 정주영 명예회장의 경영방식이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최창호 대학부장
windy@mail.dongguk.ac.kr

소나기

해정주영,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나라 경제의 디딤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생무상
△대선은 실패했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전에 통일을 생각했으니 다행이군.

△정치인일까? 아니면 경제인일까?
실패한 정치인! 성공한 경제인!
△시련은 보고 갔어도 실패는 못 보고 가셨군요.
△시련도 없고 실패도 없지만 죽음은 있다.
△함부로 고인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
당신은 그분의 1/1000의 노력을 해보았나?
△왕희지가 남긴 빛과 그림자 가운데 빛만 오래가길...

△그래도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았다.
△그 때문에 경제가 살아났고 그 때문에 경제가 죽었다.
△정주영은 그냥 머리 좋은 장사꾼... 타이핑이 좋았을 뿐 과대 평가 하지 말길...
△뛰어난 사업가였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뛰어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부도덕과 타락을 요구했다.
△정치 실패만 안 했으면...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실패하지 않으리.
△그는 모든 인생의 산 증인이다.
△누구나 흠으로 돌아가지만 인생의 흔적은 갈지 않다.
△경영부실은 있어도 부도는 없다.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여전히 억울하다!
△맞아! 그러나 왕자의 난만 없었더라면...
△그냥 돈 많은 기업가가 죽은 거다.
신문 제1면에 나오는 건 웃긴거다.
경제면도 아니고... 정경유착의 단편을 보여주는 거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 "실패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는지"
△북한에 황소는 누가 끌고 가나?
△정경유착도 같이 가지.
△왕희지는 검소했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 돈을 몰려 주나?
그런 건 사회에 환원해!
△정주영, 며칠만 살아 오늘 현대주식의 바닥을 보았다면 이말 한결 후회할걸.
△기업계 연줄구도를 만든 장본인이지만 그의 업적은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할 일이다.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7702058
FAX : (054)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하이텔 ID : dgupress

니우누리 ID : 동대신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소고기 버섯찌개 (1500) 불고기비빔밥 (1500) 건새우군대국백반 (1500)
화	제육두부찌개 (1300) 오징어달걀 (1500) 탕수육백반 (1500)
수	양지탕 (1500) 양송이볶음밥 (1300) 떡볶이스파게티 (1500)
목	소고기국밥 (1500)
금	계맛살판볶기 (1500) 오로리이스 (1500)

(단위: 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사골우거지탕 (1500) 해물된장떡볶이 (3000) 해물달걀 (1500) 더덕구이 (3000)
화	살림탕 (1500) 민두버섯전골 (3300) 만두탕수 (1300) 카레라이스 (3000)
수	팔복국밥 (1500) 육개장 (3300) 신채비빔밥 (1300) 가지마구이 (3300)
목	잔치밥 (1500) 순두부찌개 (3000)
금	최고기육국백반 (1500) 닭갈비 (3300)

(단위: 원)

역사재해석의 어려움

지난호 '역사 재해석의 의미'를 찾아 '역사'는 매우 흥미로웠다. 요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논란이 많은데,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시대와 민족 및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재해석되는 역사는 때때로 이해 관련 집단들에 의해 쉽게 왜곡되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 왜곡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역사학은 학문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쓰여질 운명을 타고난 학문이기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사가 더불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황주영 (이과대 화학3)

원론적 기사흐름 아쉬워

학술면에 실린 P2P 관련 기사는 식상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 뉴스나 일간지에서 한참 떠들썩하게 P2P에 대해 상세히 다뤄졌을 뿐 아니라 학술면의 P2P 기사는 대부분이 P2P에 대한 설명과 해킹이나 보안에 노출돼 있는 문제점 등을 교과서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P2P가 불법행위로 인정된 시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더 좋은 기사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기가 지나도 같은 아이템을 다룬 시각으로 접근한 기사를 보면 독자는 기존의 지식에서 생각의 전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신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현정 (인문대 중문2)

미소 잃지 않는 여유 있는 삶 되길

사람하는 이의 아름다운 모습, 새근새근 단잠을 자고 있는 갓난 아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의 재롱... 이런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있다. 바로 미소, 미소가 우리의 입가에 양각되어 진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란 거친 삶을 걸다 보면 어느새가 신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입모양새를 잃어버리게 된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보통 이성문제, 가정문제, 학업문제 등의 다양한 고민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멍들게 해달랠야 표정마저도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이다. 지금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아무 가식없이 웃었던 그 어린 시절의 웃음을 떠올려 보자. 그런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왜 우린

지지 못하는가? 모든게 뜻대로 안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을 감자.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고민을 천천히 곱씹어 보자. 그럼 지금 자신에게 닥친 크나큰 고민들은 십여년이 지난 후에 바라보면 '내가 그랬었나?'하고 슬쩍 웃으며 넘어갈 일이 될지도 모른다. 삶이 괴로울 때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가지고 웃자. 김삼용 시인의 '남으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다. 그 시의 한 구절인 '왜 사나간 웃지요'라는 말처럼 여유있는, 그런 미소를 가진 사람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

박정환 (사과대 사회2)

남의 우편물도 소중하게 관리해야

얼마전 경주캠 학생회관 1층에 있는 우편함에 편지를 찾으며 간 적이 있다. 오랜만에 친구가 학교로 보낸 편지에 잔뜩 기대를 하고 갔었다. 그런데 봉투가 아무렇게나 찢겨지고 편지지는 한 장이 사라진 채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누군가 남의 편지를 읽으면서 웃고 재밌어 했는지 모르지만 막상 피해를 본 사람은 여간 기분이 언짢아지는 게 아니다. 특별히 우편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더욱 난처해졌고 하소연도 못한 채 씁쓸하게 돌아서고 말았다. 부득이하게 학교 우편함을 사용해야 하는 자취생들은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우편물이 찢어져서 곤란을 겪게 되

는 일도 많을 것이다. 만약 우편함에 열쇠가 있다면 관리하는 사람에게 매번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번거롭겠지만 우편함이 제대로 소중하게 방치된다면 같은 피해를 입는 학생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조해영 (인문대 사회복지2)

학내 동아리 공연 즐기는 문화생활

저렴하고 질적 수준 갖춘 공연 만끽

"당신에게 문화생활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연장이나 영화관을 가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는 것 등을 이야기할 것이다. 혹자는 인사동의 미술관이나 패션쇼장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생활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이라도 연극을 보거나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매니아나 관련직종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연이나 연극 등의 가격이 도시민의 문화생활 능력에 그리 만만치 않은 액수이기 때문이다. 혹시 2천원짜리 연극을 보았는가? 아니면 2천원짜리 락공연 보았는가? 지금 이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학교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게시판으로 가보라는데 부탁을 하고 싶다. 아마도 '극회', '피어리스턴', '탈' 등의 동아리들이 공연한다는 포스터가 붙어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내에서도 얼마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있다. 서울캠퍼스 공연동아리는 7개다. 이들은 1년에 평균 3차례이상 공연한다. 그럼 학내에서 1년에 21개의 공연이 열

리는 것이고 한달에 1개 이상의 공연이 있다는 얘기다. 내가 속해 있는 동대극회는 1년에 3회의 정기공연(신입생환영공연, WORK SHOP, 가을정기공연)을 한다. 다른 동아리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체로 이런 공연들은 동아리 내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이 관객임에도 순수 관객이 아닌 대부분 배우와 스태프의 친구나 부모님 또는 다른 극회 사람들뿐이다. 단순히 연극을 보고, 음악을 느끼려고 찾는 순수 관객은 없다. 작년 가을 정기공연 때 대학원생이 포스터를 보고 찾아 주어서 극회 회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학교내의 동아리들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은 무료이거나 비싸서 2천원이다. 물론 가격이 싸다고 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대부분이 좋은 작품, 좋은 음악을 선사할 수준은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학외 공연에 눈을 돌리기에 앞서 학내 좋은 공연들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학생들을 학내 공연장에서 만나길 기대해본다.

임진규 (사과대 신문방송2)

통학버스 이용 ... 도덕성·예의 부족

주인된 모습에 인색한 학생들 반성해야

개강 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간 경주캠퍼스에서는 통학버스 문제로 많은 말들이 오갔고 나 역시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포항, 부산, 대구, 울산 등 통학생이 많은 우리 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 통학 버스가 늦게 생긴 편이다. 시행초기부터 많고 달도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할 정도로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까지 승차 장소와 운행코스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 가리라 믿는다. 그러나 통학버스에 대한 불평 불만을 토로하던 학생들에게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예의범절과 도덕성을 찾아보는 힘들이는 버스가 내내 쓰레기를 버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한 버스 기사 분은 "학생들 모두 자식 같고 동생 같아서 한 걸음이라도 덜 걷게, 덜 불편하게 해주고 싶지만 그런 물상식한 모습을 보면 잘해주고 싶던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다. 나는 그 기사 분의 말씀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며 권리를 주장 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주인된 모습을 보이는 데는 인색한 것이 지금 학생들의 모습이다. 주인인식을 떠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 공공질서, 도덕성, 예의범절임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것들을 잊어 가는 학생들의 모습에 마음이 씁쓸해진다.

김수경 (인문대 한문3)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충환아, 생일 축하한다.
-동진, 진우, 동환
△2:8 님의 생신 축하합니다. -이충 고평
△생자대 01 봄이, 유미 님이지만 생일 축하한다. -수지, 은경, 나현
△4월 2일 공과대 01 김민경 생일 축하합니다!
-법학과 01 H S & 사과대 01 H Y
△보도부 43th 지용, 재중, 지식, 정연, 진희아! 님이지만 방송국 합격한 거 축하해. -보도국장 형이
△민정아! 생일 축하해 ~ -현우를 24기

열심히하십시오
△노래패 열심히 합니다. -새벽비빔
△민선, 민영, 영희야 우리 모두 열심히 하자! -악바리

△민성아, 지영아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면2
△수학과 교육실습 잘 다녀오셔 ~ -95 용준, 96 지혜, 98 해란, 지영
△탈 새내기 현준, 민희, 성민, 미진, 열심히 하세요! -멋있는 분
△4월 4일 불교대 해오름식 fighting!
△현우를 25기 여러분, 레슨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지영아! 교실실습 잘 땡겨와 ~ -two J
△4월 4일 생명자원과학대 식목행사 멋지게 합시다! -생지경 DJ 벨이
△4월 4일! 재학생 철야 날! 모두 참석합시다! -동물 집행부
△42th 혜경, 혜정, 서경아 좀만 더 힘내 보자!! -정희영
△선주야, 외롭다구 바빠피지 말고 나랑 놀자. -주현
△정은희, 감기 걸렸다고 땡방 부리지 말고 여행때까지 잘해. -정희영
△YWAM에 들어온 새내기야 힘내게들 환영합니다. -사학과3 홍지애

은망글
축하합니다
△'상일'씨 첫 월급 축하합니다.
△은경언니, 현철오빠! CC 축하드려요 ~ △은희야! KFC 취직한 거 축하해, 월급 타면 한턱내라! -친구
△20대 영문학과 학회장 오빠 4월 20일 생일 축하해요. -친구
△조! 4월 5일 생일 축하한다! -國史학가
△낙호 형아 생신 축하합니다. -from규복
△은진아! 님이지만 생일 축하해 ~ -D·N·C

열심히하십시오
△블래! 올해는 블래하자! -국문과 학우
△광개토 신입생! 열심히 해서 우승합시다. -廣
△삼소리 신입생 환영회 집행부님들 열심 미 합시다. -노철
△제21대 국문과 집행부님들, 땡혀들 우리

과를 정성으로 키워냅시다. -학회장
△영수야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약 19일) 열심히 해라. -A·K·H
△자대 생물학과 미생물학실험반 벤처기업 MYCO' 열심미 합시다! -영
△경니, 혜현, 상애, 진희야 5월 실습 열심히 하자. -다·놀 일동
△형궁이, 은경이 한 해 열심히 이끌길 바래. -큰 누나 진
△사체과 새내기 기원아 학교생활 열심히 해라. -형님이
△블동 과내동아리 붓·아 여러분! 열심 미 하세요. -1기 언나들

그리고...
△동기들이 4월 5일 멋진 동기에들 만들어 보자. -환장님
△동아리 이끌라 힘들 을 동·배 14기들, 선배들이 있으니 애 좀 써요 ~ -13기 선배가
△수정아랑 끝이! 미안해, 내가 너의 사랑하는 거 알지? -친구
△은우야, 혜영아 답엔 밤사 아니 솔로 사 ~ △국문과 4학년! 마지막 한 해 힘냅시다.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숙음배추국 (1300) 마파두부달걀 (1800) 삼색볶음밥 (1600) 불고기달걀 (1700)
화	미역국 (1300) 돈가스 (1500) 함박스테이크 (1800) 스테이크백반 (2000)
수	감자양파국 (1300) 미트볼달걀 (1600) 쇠고기볶음밥 (1700) 전주비빔밥 (1800)
목	복어채국 (1300) 닭갈비볶음밥 (1700) 속풀이국밥 (1300)
금	김치국 (1300) 참치야채비빔밥 (1500) 양송이볶음밥 (1600) 탕수달걀 (1600)
토	미역두부채운장국 (1300) 김치볶음달걀 (1600) 정통국밥 (1300)
일	하루나린장국 (1300) 햄야채볶음밥 (1600) 정통국밥 (1300)

(단위: 원)